신안군 천일염 전체 시설이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쑥대밭이 되며 전국 최대인 전남 신안군 천일염 생산이 당초 목표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2차례의 태풍에 파손된 신안군 지도읍 한 소금창고. 〈신안군 제공〉

# 신안 천일염 "올 생산 불가능"

## 겹태풍에 염전시설 '쑥대밭'…재해 보상기준 현실화 시급

최근 잇따른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내습으로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는 신안군 천일염 전체 시설 전체가 물에 잠기고 강풍에 날아가는 등 쑥대밭이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안군 천일염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 전망된다.

신안군은 "'릴레이 태풍'으로 염전시설이 파손되고 천일염과 함수(鹹水)는 물에 녹거나 유실되는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4일 밝혔다.

소금창고 145동을 비롯해 물을 증발시켜 고농도의 함수를 저장하는 '해주' 374동, 가공유통시설 7개소가 파손됐다. 이로 인해 소금창고에 저장된 소금이 녹아버리고, 해주에 가둬둔 함수는 물에 희석되는 등 올해 천일염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천일염 생산농가는 고품질 친환경 천일염 생산을 위해 결정지를 친환경 자재로 교체했지만 장판이 찢어지고 보강재는 한쪽으로 밀려나가 올해 천일염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대개 천일염 생산은 지난 4월 시작해 10월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올해 생산 작업은 태풍 피해로 어렵게 됐다.

박형기 신안 천일염 생산자연합회장은 "고품질 친환경 천일염을 생산하기 위해 교체한 장판 등 시설물이 쑥대밭이 돼 올 소금 농사는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현재 보상기준이 ▲소금창고 ㎡당 20만8500원 ▲해주 6만9500원 ▲결정지 유실 377원 ▲결정지 매몰 188원으로 실제 현실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현실화를 요구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피해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염전시설에 대한 재해피해 보상기준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남도 먹을거리 '쇼핑몰'서 구입하세요

### 전남 농수산물 생산자 모임 '남도밥상'서 11일부터 운영

### 신선한 간장 게장·홍어 등 500여 품목 저렴한 값에 판매

남도의 신선하고 저렴한 먹을거리를 한 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쇼핑몰이 문을 연다.

전남 농수산물 생산자 모임 남도밥상 협의회는 '남도밥상'(namdobobsang.co.kr) 쇼핑몰을 구축,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 협의회는 11일 목포 원예농협에서 브랜드 선포식을 갖고 출시하는 500여 개 품목에 대한 시식회를 열 계획이다.

우선 간장 게장, 갓김치, 홍어, 한우고기 등 500여개 품목을 쇼핑몰에 1차 출시한후 앞으로 품목을 늘려 국내 최고의 농수축산물 쇼핑몰로 육성할 예정이다.

이 쇼핑몰은 남도의 농수축산물을 총망라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남도밥상은 생산 농어민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산물분과, 곡물분과, 과실분과, 채소분과 등으로 구성됐다.

각 분과 농어민은 계절별, 품목별, 종목별 최상급의 농수특산물을 엄선해 중간 유통 마진이 전혀 없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남도밥상은 별도의 가격 모니터링팀, 품질 검수단을 두고 올일 품목 동일 수준 최저가격 유지, 최상의 품질 및 위생상태 유지 등에 힘쓸 방침이다.

남도밥상 이영하 회장은 "농어민도 대기업 못지않은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만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 섬 청소년들의 소중한 진로체험

### 신안 도초고 1·2학년생 잡월드·충남 계룡대서

신안군 도초고등학교(교장 안경헌)는 최근 1박2일간 1·2학년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성남시 소재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와 충남 계룡대에서 진로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전남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시책과 학교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된 이번 진로체험 활동은 학생들이희망하는 미래직업을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약해 잡월드내 청소년 체험관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도초고는 지난 2007년 농·산·어촌 우수고로 선정돼 3년간 16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우수 인재의 도시 유출을 막고, 농·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했다. 이어 지난 2008년에는 기숙형 고교로 선정돼 가정과 같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침실과 학습실, 정보검색실 및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현대화된 첨단 기숙사 등을 건립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목포신항 개발비 82억 추가 확보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은 목포신항 개발 예산 82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목포항 개발 예산은 250억원에서 332억원으로 늘어나 목포항 개발사업의 적기 준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항 석탄부두는 올 예산 10억원에서 43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자동차부두는 97억원에서 130억원으로 33억원이 늘었다. 신항 소형어선부두는 6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1993년 시작한 신항 개발사업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8590억원을 들여 부두 9선석을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해남 땅끝콘도 새롭게 단장

### 80실규모 리모델링 회의실·연회장 등 갖춰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땅끝에 80실 규모의 콘도 미니엄이 문을 열었다.

(주)해남땅끝 토비스(대표 김만곤)는 그동안 방치되어왔던 땅끝콘도를 지난 5월께 인수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왔다.

부지7551㎡에 들어선 해남 땅끝토비스 콘도는 객실 총 80실 규모(지하 1층·지상 8층)로 18평형 62실, 27평형 10실, 36평형 6실, 46평형 2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숙박시설 외에 회의실과 연회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별도의 부대시설을 갖췄다.

김만곤 대표는 "앞으로 단체연수와 지역축제, 주변 관광지 등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 등을 운영해 관광객유치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해남의 상징인 땅끝 초입에 몇 년 동안 흉물로 방치돼왔던 땅끝콘도가 이제 새롭게 개장을 하게 됨으로써 땅끝 권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그동안 송호해변 및 땅끝권역에 부족했던 숙박시설 확충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전 북

# 새만금 산·학 융합지구 '첫삽'

## 489억 들여 내년 8월께 준공

### 오식도동서 기공식

군산시는 4일 오식도동에서 윤상직 지식경제부 차관, 김완주 전북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채정룡 산·학융합본부 이사장, 기업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새만금 산·학 융합지구' 조성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산·학 융합지구 조성사업은 국비 246억을 포함한 총 489억의 예산을 들여 산업단지와 캠퍼스를 공간적으로 통합해 산업단지에 맞는 학과 개설 운영과 R&D 기술개발을 추진할 기업연구소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산학융합지구 조성공사는 오는 201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부지 1만2464㎡, 연면적 1만6376㎡에 기업연구관과 캠퍼스 및 QWL관(근로복지관)을 건립하게 된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연구소 입주시설을 조성, 인력양성·연구개발(R&D)·고용이 융합된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해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를 지식기반형 산업단지로 변화시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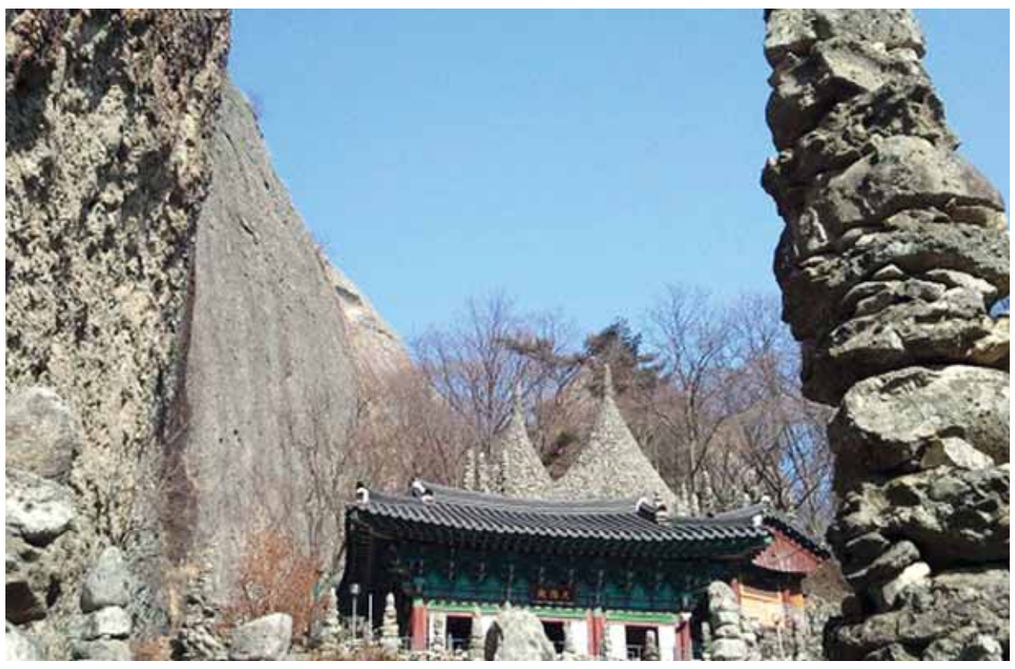
전북 새만금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 캠퍼스에서 4개대학 7개 현장맞춤형 학과 개설, 산학협력 석사과정 도입, 프로젝트 랩(Lab) 과정 등 학생들에게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또 근로자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 특별전형, 중소기업 계약학과, 동업자 대학 등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연구관에 100개의 중소기업 연구소를 입주시켜 산업단지 캠퍼스와 산학공동 R&D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산·학 융합지구 조성사업은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은 물론 지역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태풍에도 끄떡없는 마이산 돌탑** 지난달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전북 진안군 마이산 주변 수백 그루의 나무가 쓰러졌지만 탑사 돌탑 80여기는 초속 20m가 넘는 강풍에도 끄떡없어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 전주서 전세계 소리꾼 한마당

### 13일~17일 '2012 세계 소리축제' 한옥마을서

### 명창 경연대회와 아랍·포르투갈 음악도 선봬

'2012 전주 세계 소리축제'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소리 한 상 가득'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42개 프로그램에 203회의 공연으로 구성된다.

소리축제 첫날에는 박칼린 집행위원장이 총괄기획한 세계의 소리와 춤,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개막공연 '소리 버라이어티 콘서트'가 축제의 첫 포문을 연다.

전국의 귀명창을 위한 판소리 공연에는 신재효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문순태 작가의 소설 '도리화가'를 창극으로 재탄생시킨 '2012 광대의 노래'가 무대에 오른다.

또 왕기석·채수정·박복희·윤진철·송재영 등 중견 명창들과 남상일·정은혜·민은경·유태평양 등 젊은 소리꾼들의 판소리 다섯바탕은 관객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예정이다

이번 소리축제에는 주목할 만한 해외공연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국악과 아랍음악을 접목해 동서양을 넘나드는 재즈 음악을 연주하는 '카말 무살람 밴드'의 공연과 서정적이고 애잔한 포르투갈 전통음악 '파두(fado)'를 노래하는 파디스타 '클라우디아 오로라'의 공연이 가을밤을 수놓는다.

창단 50주년을 맞은 살사밴드의 최고 거장 '엘 그랑 콤보'가 첫 내한해 정열적이고 역동적인 라틴음악의 세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박칼린 집행위원장은 "올해 소리축제에는 전통성이 강화된 국악공연과 함께 월드뮤직의 다양성까지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전북교육감 "직권남용 교과부 장관 탄핵해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실을 기재하는 사안과 관련해 감사반을 파견해 연일 교육청 직원과 교장들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도교육감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여야 정치권에 요구했고, 검찰에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이 장관이 ▲법치국가 원칙 유린 ▲소년법 위반 ▲국회경시 ▲감사 과정에서의 협박 ▲개인정보 처리 원칙 위반 ▲직권남용 등의 악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라는 지침을 거부한 전북교육청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단신

### 전주시 500여 공무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주시는 4일 시청 강당에서 시청 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으로 활동하는 조은희 강사를 초청해 ▲공공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행해야 할 의무 이행사항 ▲본인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수집목적 외 사용, 제3자에 제공, 보유기간 경과 정보 미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 소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방안 등 순으로 진행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남원 인월공단내 기업들 과수농가 돕기 나서

최근 태풍 '볼라벤' 영향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관내 과수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기업이 발벗고 나섰다.

남원시 인월면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영우 냉동식품(주)이 낙과 300박스(900만원 상당)을 구매, 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주)지엠에프(대표 김호수)도 낙과 150박스(450만원 상당)를 구입했다.

영우 냉동식품(주) 박연수 대표는 "지역주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 정읍시 태풍 발생 주택·창고 쓰레기 무료 수거

정읍시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발생한 주택과 창고 쓰레기를 무료로 수거한다. 일반 가정쓰레기는 시 청소차량과 미화원을 투입해 수거할 계획이다.

주택과 창고의 폐슬레이트는 수해임을 확인하고서 무료로 처리해줄 방침이다. 평소 폐슬레이트는 t당 100만 원가량에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맡겨 처리해야 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태풍으로 생긴 쓰레기가 많아 주민의 고충이 크다"며 "일손을 덜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빨리 되찾도록 무료로 거둬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순창군, 마을 방범용 CCTV 60곳에 임대설치

순창군은 이달말까지 사업비 1200만원을 들여 강력사건에 대비한 60개 마을에 방범용 CCTV 임대설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CCTV 초기 설치비용 20만원(대당)은 군에서 전액 부담하고, 추가설치 비용 및 월 임대료는 마을에서 부담키로 했다.

마을에는 마을당 녹화기 1대·LCD 모니터 1대·적외선 카메라 2대 등의 장비가 설치된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